



치주치료에 사용되어지는 이식재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자가골 이식재  
(Autogeneous bone graft materials)
2. 동종골 이식재  
(Allograft materials)
3. 이종골 이식재  
(Xenograft materials)
4. 합성골 이식재  
(Alloplast or synthetic graft materials)

이와 같은 이식재를 선택하는데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1. 골형성과 백악질형성 유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조직과의 친화성이 있어야 한다.
3. 독성이 없고, 암유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질환의 전이가 없어야 한다.

4. 구하기가 쉬어야 한다.
5. 비싸지 않아야 한다.
6. 환자에게 불편감이 없어야 하고, 술자에게는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자가골 이식재는 충분한 양을 얻기 어렵고, 동종골 이식재는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골 이식재는 다양한 소독과정을 거쳐 거의 질환 전이 가능성을 배제시켰습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 상품으로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거쳐 많은 양의 치주조직 재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나 결손부위의 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남으로 잘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동종골 이식재 상품

- Dembone (Pacific coast Co.), Human allograft tissue (Osteo Tec Co.), Cortical dimin, bone (American red cross), Decal Cortical (Pennsylvania Regional Tissue bank)

· 이종골 이식재 상품

- Bio- Oss (Biomaterials Geistlich Co.)  
그 외에 합성골 이식재가 많이 사용되는데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 흡수성

- 1) Plaster of Paris - Capset, Hapset (Lifecore Bio-medical Co.)
- 2) Calcium carbonate - Bioeoral (Inoteb Co.)
- 3) Tricalcium phosphate - Synthograft (Johnson and Johnson Co.)
- 4) Resorbable HA

#### 2. 비흡수성

- 1) Polymer - HTR (Bioplant Co.)
- 2) Dense HA - Calcite 2040 (Calcitek Co.), Osteograft (Ceramed Co.)
- 3) Bioglass - Biogran (Orhovita Co.)

위와 같이 다양한 재료들이 시판되고 있으며, 이들 골이식재료와 함께 Membrance를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또 골재생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가골과 동종골을 섞어서 쓰기도 하고, 동종골과 합성골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확한 치근 활택이나 염증조직의 확실한 제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외에도 환자의 건강상태나 골결손부위의 형태를 잘 고려하여 골이식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